

‘광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확대

누구나 자동 가입...기후변화 반영 올 자연재해 상해·후유장애 신설 폭발·화재 등 사망시 1000→2000만원 상향...내년 2월 20일까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광주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 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최근 4년 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보장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고,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보장을 신설했으며, 사망 보장금액도 지급실적이 높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에 대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또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보장범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경사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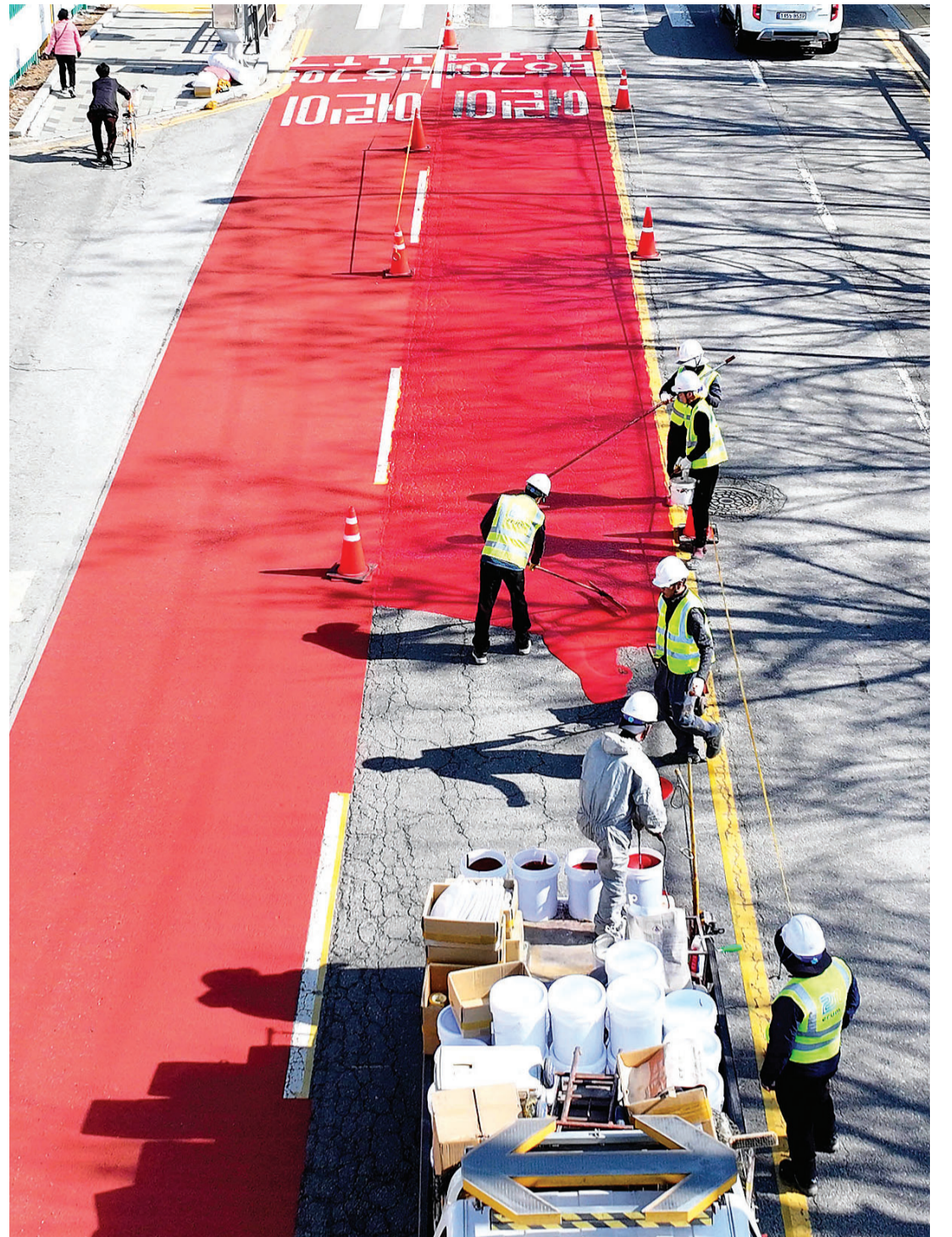
광주시는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을 보장한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현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613-4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불의의 사고시 자동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최근 북구 우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의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 범위를 1~14등급까지 확대한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3개월 약제비·혈액검사비 등 최대 124만원...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여성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는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시한의사회가 업무 협약을 통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80명이다.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시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 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2년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참여자 148명 중 21명(14%)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한방 난임 치료비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도로 공사비 1805억 조기 집행

상반기 65% 집행 계획...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올해 1805억원을 투자해 국가지원지방도, 일반지방도 등 모두 197.9km를 정비한다. 올 상반기 공사비의 65%를 조기 집행에 나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20일 지방도 사업 관련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열어 정령 실천을 서약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4개소 26.8km) 233억원, 일반지방도 정비사업(48개소 171.1km)에 158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지원 지방도, 일반 지방도 정비사업과 해상연도교 개설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 내용과 신속집행 달성 목표, 현안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별 계획 대비 공정률을 재점검하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체불방지, 주민불편

우려사항, 공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현장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훈련 등 각별한 현장관리도 당부했다.

보고회에 앞서 반부패·청렴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청렴 교육과 서약식도 진행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방지하고, 도로공사 현장 내 정령문화 확산과 반부패 실천을 다짐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방도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시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전남 만들기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비상 진료 가동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유지”

광주시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대 증원 반발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구성한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비상 진료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과, 대변인실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응급 의료기관에서 집단 휴진이 발생하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기관 비상 진료·필수 의료 체계 가동 실태, 응급환자 이송·전원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 21개 응급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비상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동부권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설치

오늘 도청서 설명회

전남도가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공모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영광에 있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육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해 동부권역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22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2층 나철실에서 희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관심있는 기관은 별도 절차없이 설명회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2월 말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동부권역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공모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직업교육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누리집·공고란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